

음모와 기만

— 염상섭 소설의 추리적 기법*

강 현 국**

요약

재현과 논설을 통해 사실주의를 실천하던 염상섭은 재도일을 전후한 시기에 새로운 창작 방법으로 추리적 기법을 도입한다. 작중에서 인물이나 서술자에 의해 전개되는 논설은 공론에 그치곤 했다. 그에 비해 행동과 사건을 대상으로 한 재현은 구체적인 실감을 획득했다. 그래서 재현이 논설을 압도하게 되었다. 그러한 불균형은 염상섭이 의도한 주제의 구현을 어렵게 만드는 곤경을 초래했다. 본질적인 가치가 희화되기까지 하는 사태가 그에게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염상섭 소설에서 추리적 기법은 재현과 논설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다. 추리는 논리적 속성과 경험적인 속성을 지닌다. 그 두 속성이 논설과 재현 사이에 추리가 자리할 수 있게 한다. 논리적 속성이 논설에 닿고 경험적 속성이 재현에 닿음으로써 추리가 논설과 재현을 매개하게 된다. 추리적 기법이 도입되면서 논설로써 공론을 펼치던 인물이 행동에 나설 여지가 생긴다. 추리는 수사의 과정을 요청하는데 탐정 격의 인물이 그 과정을 수행한다. 그래서 말에 그치던 본질적 가치들이 실천되고 논설과 재현 사이의 불균형이 조정된다. 『진주는 주었으나』에서 그러한 조짐이 드러나고 『사랑과 죄』에서는 양자 사이의 관계가 대등한 수준에 이른다. 추리적 기법이 인물들을 탐정과 범인이라는 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면서 인물들 간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사랑과 죄』에서는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양상을 띤다. 세 차례에 걸친 대결에서 선한 집단은 악한 집단을 번번이 이기지만 그 승리는 잠정적인 데 그치곤 한다. 악한 집단이 식민 권력을 숙주로 삼는 한 선한 집단은 승리할 수 없다. 『사랑과 죄』는 선한 집단의 급격한 외해로 끝난다. 『이심』

* 2019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은 선한 집단이 사라진 이후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그 세계에 남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망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랑과 죄』에서보다 격한 투쟁을 벌인다. 그 들끼리 범하는 음모와 기만은 추리적 구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현된다. 인물들이 벌이는 탐욕과 암투는 그 자체가 타락한 세계의 현주소이다. 거기서는 아내를 유박에 팔아넘기는 행위마저 정의로 왜곡된다.

주제어: 논설, 사랑과 죄, 염상섭, 이심, 추리, 재현

목차

1. 서론
2. 논설과 재현 사이
3. 끝나지 않는 싸움, 『사랑과 죄』
4. 악의 세계, 『이심』
5. 결론

1. 서론

『진주는 주었으나』의 결말에서 효범과 문자는 동반 자살하기 위해 바다에 투신한다. 남녀 주인공의 자살이 비장하게 여겨질 법하다. 그러나 소설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구조되고 자살은 미수에 그친다. 그 결말은 『젊은 그들』의 남녀 주인공이 맞는 최후와 대조된다. 재영과 인화는 강에 배를 띄우고 선상 결혼식을 한 뒤 함께 독약을 마시고 자살한다. 그들의 시신을 실은 배는 바다로 흘러가 종적을 감춘다. 김동인이 『젊은 그들』에서 두 주인공의 죽음을 신비롭게 미화하는 데 반해 염상섭은 『진주는 주었으나』에서 그런 식의 처리를 하지 않는다. 효범과 문자는 물에서 건져져 병원으로 이송되고 소생을 위한 응급처치를 받는다. 그러한 반전이 남녀 주인공의 정사가 미화될 여지를 차단한다. 미수에 그친 자살 시도는 자살에 내포된 비극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객관화된다. 남녀 주인공의 자살로 소설이 끝나는 것을 염상섭 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 사건의 경과를 신문기사처럼 간결하게 전 하는 결말을 통해 사실주의자로서 염상섭이 지닌 면모가 새삼 확인된다.

염상섭의 사실주의는 『만세전』을 통해 가시화된다. 고백체의 실천을 의도한 초기 삼부작이 작중 자아의 주관적 내면을 표현하는 데 주력한다면 『만세전』에서는 객관 현실이 재현된다. 이인화는 지각의 주체로서 현실의 재현을 매개하며 인식의 주체로서 그 현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수행한다.¹⁾ 그의 반성적 성찰은 논리적인 과정을 밟아 진행되기에 객관성을 획득한다. 논리적 과정이 언어로 서술되면 논설의 형태를 띤다. 『만세전』에서 객관 현실의 재현을 위해 사용된 논설은 이후 염상섭의 소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술 방식이 된다. 염상섭의 사실주의는 현실의 사태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재현된 사태들과 관련된 논설을 전개함으로써 의미의 객관성을 추구한다. 논설은 화자에 의해 직접 수행되기도 하고 작중인물의 의식을 통해 전개되기도 하며, 연설과 토론, 서간 등의 방식을 통해 작중에 표명되기도 한다.²⁾

염상섭의 소설은 재도일을 전후한 시기에 재현과 논설에 더하여 창작 방법을 하나 더 갖추는데 추리적 기법이 그것이다. 염상섭은 1926년 일본으로 건너가 25개월 동안 동경에 머물렀다. 그의 두 번째 일본 체류였기에 연구자들은 그 시기를 재도일기로 일러왔다. 그가 일본 문단에 진출할 목적으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으며³⁾ 재도일기가 그에게 ‘창작의 산실’⁴⁾

1) 이와 관련하여 “『만세전』의 사회관찰이 주인공 자신의 심령의 깊은 곳에 연결되어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김우창의 언급을 참고로 인용한다.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119면.

2) 필자는 이전 논문에서 염상섭 소설에 내재된 논설적 특성을 재현과 관련지어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본 논문은 그 후속 연구로서 수행되었다. 강현국, 『재현과 논설』, 『현대소설연구』 7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3. 5-36면.

3) 김종균, 『염상섭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4, 31면. 김종균은 염상섭이 재도일한 이유를 세 가지 들었는데 그중에서 첫째, ‘일본 문단에의 진출 목적’이 문학적 의미를 지닌다. 둘째 이유로 든 율화와 염증은 사적 감정이어서 고려될만한 가치가 적고, 셋째 이유로 든 문학적

이었다는 견해가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다. 그의 항일 의지가 채도일기의 소설에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었다.⁵⁾ 『남충서』와 『사랑과 죄』가 채도일기의 대표작으로 선별되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채도일기의 전반의 문학적 성격과 관련하여 문예사조가 거론되었고 작가의 현실 인식이 고찰되었다.⁶⁾ 『남충서』의 주인공이 혼혈이라는 점이 특별한 주목을 받아서 정체성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⁷⁾ 『사랑과 죄』에 대한 논의는 연애와 정치라는 두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⁸⁾ 타락한 세상에서 지순영과 이해춘이 사랑을 이뤄가는 과정에 대한 여러 견해가 제출되었다. 그들의 순수한 사랑이 류택수를 비롯한 일군의 추악한 인물들과 대비되었다. 김호연이 비밀리에 전개하는 항일 투쟁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김호연 일행이 적토와 벌인 논쟁을 통해 당

역량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모험심은 첫째 이유의 반복이다.

- 4)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351면.
- 5) 이보영은 채도일기에 연재된 『사랑과 죄』를 논의하면서 ‘저항적 중심의 태동’이라는 표제를 달았다.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림기획, 2001, 263면.
- 6) 문예사조의 시각에서 염상섭 소설의 전반적 특성은 자연주의와 사실주의로 규정되었다. 백철을 비롯한 염상섭 당대의 평자들이 염상섭 소설이 자연주의적이라고 주장했고 그 주장이 이후 통설처럼 받아들여졌다. 김현과 김우창이 염상섭 소설이 지닌 사실주의적 면모에 주목했고 그에 동조하는 견해가 1970년대 이후 다수 제출되었다. 김윤식은 염상섭이 채도일기를 통해 자연주의의 기교를 습득했다고 판단했으며 강인숙은 채도일기의 염상섭 소설이 다이쇼기 자연주의에 근접한다고 파악했다.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2003, 254면. 이 책은 1949년 출간된 『조선신문학사조사』의 개정판본이다. 김현, 『김현 문학전집 2-현대 한국문학의 이론/ 사회와 우리』, 문학과지성사, 1991, 200면; 김우창, 앞의 책, 111면; 김윤식, 앞의 책, 364면; 강인숙, 『자연주의문학론 2-염상섭과 자연주의』, 고려원, 1991, 438면.
- 7) 하정일, 김경수 등이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하정일 『보편주의의 극복과 ‘복수’의 근대』, 문학과사상연구회 편,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깊은 샘, 1998, 71-72면; 김경수, 『염상섭과 현대소설의 형성』, 일조각, 2008, 107면.
- 8) 조남현, 장수익 등이 『사랑과 죄』에 연애서사와 정치서사가 결합 관계에 있다고 이해하였다. 최혜실, 서영채 등은 『사랑과 죄』에서 연애서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견해를 제출했다.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사 1』, 문학과지성사, 2012, 526면; 장수익, 『이기심과 교환 관계 그리고 이념-염상섭의 중기 소설 연구 I』, 『한국언어문학』 64집, 2008, 326면; 최혜실, 『염상섭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통속성 연구』, 『국어국문학』 제 108호, 1992, 211면;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195-197면.

대의 사상적 상황이 검토되었으며 최진국의 인삼 사건이 발각된 후 벌어진 사법적 과정에서 식민 권력의 부당성이 고찰되었다.

이상의 개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염상섭의 재도일기 소설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제론에 편중되었다. 그에 비해 형식과 방법에 관한 논의는 드문 편이었다. 김경수는 염상섭이 “재도일을 계기로 하여 소설의 허구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기법적 측면에서도 고백적 일인칭 시점으로부터 삼인칭 전지적 시점의 소설들을 실험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옮겨갔던 것으로 보인다.”⁹⁾고 했다. 장두영은 염상섭의 재도일기 소설에서 작중 상황의 필요에 따라 객관 혹은 주관에 지향하는 서술 방식들이 사용되는 양상을 고찰하였으며 그러한 서술 방식들은 ‘신간회의 민족협동전선’을 전망한다고 보았다.¹⁰⁾ 선민서는 염상섭의 재도일기 소설에서 논쟁이 구현되는 양상들을 검토하였으며 논쟁의 작품 내적인 기능과 의미를 설명하였다.¹¹⁾

형식과 방법에 관한 논의로서 본 논문과 직접 관련된 선행연구로 김학균의 논문이 있다.¹²⁾ 김학균은 염상섭의 소설 전반에서 나타나는 추리소설적 특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도일기에 속하는 『사랑과 죄』도 논의하였다. 그런데 그의 연구는 추리소설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설정했다는 반론을 부른다. 사건의 자초지종이 전개되는 과정은 추리소설이 아닌 서사 일반의 특징이다. 서사는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탓에 서사를 이루는 요

9) 김경수, 앞의 책, 102면

10) 장두영, 『염상섭 소설의 서사 시학과 현실 인식의 관련 양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0.

11) 선민서, 『염상섭의 재도일기 소설에 나타난 논쟁의 서사화 양상 연구: 『남충서』 『미해결』 『두출발』 『사랑과 죄』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12.

12) 김학균, 『염상섭 소설의 추리소설적 성격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8. 김학균의 이 연구 이전에 최혜실, 조남현, 차원현이 염상섭 소설의 추리적 특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언급은 한두 문장 수준의 단편적인 수준에 그쳤다. 최혜실, 앞의 글, 223면; 조남현, 『한국현대소설 유형론 연구』, 집문당, 1999, 217면; 차원현, 『한국 근대소설의 이념과 논리』, 소명출판사, 2007, 256면.

소들 사이에 지연과 역전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추리소설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그러한 서사 일반의 특징들을 든다면 추리소설과 서사를 동일시하는 셈이 된다. 추리소설의 외연을 서사 일반에 가 닿을 정도로 확장했기에 『제야』가 추리소설적의 구성 방식을 취했다는 주장도 가능했다. 본문 전체가 한 통의 편지로 이루어진 『제야』는 선행연구를 통해 고백체의 사례로 인정되었다. 최정인은 편지의 수신인인 남편에게 자신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위를 밝힌다. 편지는 고백체의 구사를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고백을 통해 상대가 몰랐거나 상대에게 감췄던 일들이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한 과정이 탐색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서 추리소설의 구성이라고 규정한 것은 건강부회이다. 고백의 과정을 피상적인 유사성에 근거해 추리로 오인한 것이다. 추리소설이라는 전제에 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것도 김학균의 연구가 지닌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그의 논의에서 추리소설은 염상섭 소설의 특징으로 막연하게 전제될 뿐이다. 염상섭 소설의 전개에서 그러한 특징이 어떤 내적인 계기로부터 언제 나타났는지에 관한 고찰은 수행되지 않는다. 추리소설이 유행한 당대의 분위기를 제시하는 정도에 그친다. 염상섭 소설의 중요한 특징을 거론하긴 했으며 그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셈이다.

염상섭은 제도일을 전후한 시기에 추리적 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본 논문은 추리적 기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점을 포착하여 염상섭의 창작방법론의 맥락에서 그것이 지닌 의미를 검토한다. 이어서 『사랑과 죄』와 『이심』에 나타난 추리적 기법의 양상들을 논의한다. 본 논문의 논의 과정에서 전술한 선행연구의 문제도 바로잡힐 것이다.

2. 논설과 재현 사이

염상섭은 논객으로서 문필활동을 개시하였으며 소설가가 된 뒤에도 꾸준히 논설을 발표하였다. 그의 논객다운 성향은 소설 창작에도 발휘되어 소설 본문에서 논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결과를 빚었다. 토론이나 연설, 서간의 방식으로 주제와 관련된 논설이 개진된 사례들이 그의 재도일기 이전의 소설에서 쉽사리 목격된다. 그러나 소설을 성립시키는 서술 방식으로서 논설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소설은 서사를 본질로 삼는다. 논설은 추상적 개념의 논리적 전개라면 서사는 사건들의 통시적 진행이다. 논리는 사건과 같은 시간성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논설은 서사를 정지시키거나 지연시킨다. 서술자가 직접 논설을 전개하는 경우에 서사가 정지하고 인물이 논설을 전개하는 경우에 서사가 지연된다. 「해바라기」에서 서술자가 최영희의 사고와 행동을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부분들이 전자에 해당하는 예이다. 「E선생」에서 E선생이 연설하는 장면이나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에서 작중인물들이 토론을 벌이는 장면은 후자에 해당하는 예이다. 논설 중에 논증을 위한 사례로 서사가 인용되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는 논설이 서사를 포획하는 결과가 빚어진다. 「남충서」는 그러한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난 사례이다. 본문 전체가 미좌서와 남충서 사이의 논쟁으로 이루어진 「남충서」에서 두 인물이 겪었거나 알고 있는 사건들이 논쟁을 통해 언급된다. 그 사건들은 서사의 구축보다는 논쟁 당사자들의 논란거리를 부각하거나 주제를 암시하는 데 이바지한다. 논설이 의미는 형성해도 서사는 구축하지 못한 것이다. 「남충서」가 서사의 면에서 미흡하다는 자각을 염상섭도 했다는 사실이 그 작품의 부기에서 드러난다.¹³⁾

13) 염상섭은 「남충서」 말미에 덧붙인 말(作者 附言)에서 “이것은 장편의 성질을 가진 제재의 일 점을 택하여 중단면으로 적출함을 주의 깊은 독자에게 특히 일언하여 둔다.”고 밝혔다. 염상섭, 「남충서」 『염상섭 전집 9』, 민음사, 1987, 289면. 이하 이 전집에서 인용할 경우 전집 권

재현은 논설과 더불어 「만세전」 이후 염상섭의 소설 창작을 추동한 동인이다. 논설은 사유를 대상으로 삼는 데 비해 재현은 경험 사실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 양자를 직접 결부시켜 서사를 전개하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만세전」에서 채도일기까지 발표된 염상섭의 소설이 보여준다. 재현된 사실을 설명하는 정도로 논설이 재현에 종속된 경우를 제외하면 양자는 서로 이질적인 양상을 보인다. 논설을 통해 거론된 주제는 정의와 진실, 자유, 사랑, 인간성 같은 본질적 가치이다. 그런데 당대의 경험적 사실이 있는 그대로 재현되자 그 본질적 가치가 현실적 의의를 획득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논설로서 본질적 가치를 주장한 인물이 실제 행동에서는 그 가치와 모순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세속적 이해관계에 의해 본질적 가치가 상대화되기도 한다. 논리와 개념의 세계에서 본질적 가치들은 비본질적이거나 세속적인 가치들에 대해 우월한 위상을 점한다. 그러나 염상섭의 소설이 재현하는 현실에서 본질적 가치의 그러한 위상이 실현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속적 가치들보다 열등하게 취급된다. 정의는 돈 앞에 무기력하고 진실은 허위에 패배한다. 그러한 현실을 통해 당대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¹⁴⁾

경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재현될수록 본질적 가치에 관한 논설이 공론으로 전략하는 사태를 염상섭으로서는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식민지 현실에 대한 그의 비판과 저항의 정신이 그러한 추정을 가능케 한다. 재현과 논설 사이의 괴리는 그가 품었을 법한 주제의식이 작중에 실현되는 것을 어렵게 하기에 마땅히 해소되어야 했다. 그렇다고 그 양자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논설에 치중할 경우 서사가 형성되지 않았고 재현에 치중할 경우 주제가 모호해졌다. 「남충서」가 전자에 해당하고 「전화」가 후자에 해당한다. 재현과 논설 사이의 괴리

수와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14) 이 문단은 필자의 「재현과 논설」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강헌국, 앞의 글, 14-30면.

를 매워 그 양자를 연결할 수 있는 모종의 함수가 필요했다. 염상섭은 그 함수의 자리에 추리를 채워 넣었다. 추리가 지닌 논리적 속성과 경험적 속성이 논설과 재현 사이에 추리가 자리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¹⁵⁾ 추리의 두 속성이 양팔처럼 논설과 재현에 각각 닿았다. 그로써 추리가 논설과 재현을 매개하여 논설이 서사로 전개되고 재현된 사실들로부터 의미가 우러나도록 했다.

염상섭의 소설에서 추리적 기법이 처음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사례는 「진주는 주었으나」이다. 그 소설에서 진형식은 경제적인 지원을 대가로 성적인 노리개로 삼았던 조인숙을 인천의 '미두대왕' 이근영에게 시집보내려 한다. 인숙을 넘기는 대가로 진형식은 이근영으로부터 이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일종의 매매혼이 성립된 셈이다. 김효범은 매형인 진형식의 속셈을 알아채고서 그 매매혼을 방해할 계획을 세운다. 효범이 단순히 의협심이 발동되어 그런 행동에 나선 것은 아니다. 일찍이 그는 인숙을 사랑했으나 그녀와 매형의 관계를 알고 난 후 그녀와 결별했다. 효범으로서 비록 자신을 배신했을지언정 인숙이 추악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다. 진형식 일파가 회동하기로 한 날 효범은 정문자에게 인숙을 미행케 하고 자신은 인력거꾼으로 변장하여 경성역에서부터 이근영을 미행한다.

효범이 진형식의 파렴치한 시도를 추적하는 일련의 과정은 추리적으로 진행된다. 그는 우연히 습득한 편지를 단서로 그것과 관련된 정황들을 엿어서 인숙을 이근영에게 팔아넘기려는 진형식의 음모를 추리해낸다. 그래서 효범과 진형식은 탐정 대 범인이라는 대결 구도를 형성한다. 진형식

15) 추리는 찰스 피어스의 가추법(abduction)에 해당한다. “가추법은 어떤 하나의 사실과 그 근원 사이에 있는 중간단계나 마찬가지로이다”로 설명된다. 경험적 사실과 순수한 논리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가추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추리가 논리와 재현 사이에 위치한다는 서술이 가능하다. 낸시 헤로비츠, 『탐정모델의 실체-찰스 피어스와 에드가 알렌 포우』,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움베르토 에코 외, 김수환·한은경 역, 인간사랑, 1994, 388-390면.

과 이근영의 회동 현장을 적발하기까지 효범이 사용하는 변장과 미행, 잠복, 탐문은 탐정이 수사에서 구사하는 방법들이다. 그러나 사법적인 권한이 없는 효범은 사건의 현장을 적발하고도 '범인'인 진형식을 체포하지 못한다. 매매혼을 저지하려는 효범은 정의롭지만 그의 정의는 현실에서 구현되기 어렵다. 효범은 진형식을 우회적으로 비난하고 이근영을 도둑으로 몰아 구타하지만 거기까지이다. 현실의 법에 의한 징벌은 실행되지 않는다. 효범은 진형식과의 대결에서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는 데 그칠 뿐 오히려 진형식에게 보복을 당한다. 진형식이 범인으로서 지닌 위력은 탐정인 효범을 압도할 만큼 강력하다. 그는 신문사 사장을 금력으로 협박하고 매수하여 김효범을 중상하는 스캔들 성격의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도록 한다. 신문기자 신영복은 효범과 문자에 관한 자신의 기사가 오보임을 깨닫고 바로잡으려 하지만 사장의 압력을 받다가 결국 사직한다.

「만세전」 이후 염상섭의 소설 창작을 추동한 재현과 논설의 기조는 「진주는 주었으나」에서도 유지된다. 비정하고 추악한 당대의 현실이 재현을 통해 가감 없이 드러난다. 진형식은 돈을 위해 인신매매를 기획하고 이근영은 돈을 미끼로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 하며 인숙은 그 둘 사이에서 철저하게 타산적인 처신을 한다. 언론 또한 금력에 매수되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공권력은 약자의 편이 되지 못한다. 작중에서 논설은 주로 연설의 형태로 나타난다. 효범은 문자와 인숙에게 염상섭의 「개성과 예술」과 유사한 논지의 연설을 하면서 세속의 연애 풍속이 타락했다는 비판을 한다. 그는 이근영과 인숙의 결혼식 피로연장에 나타나 하객들을 상대로 그 결혼의 부도덕성을 밝히는 연설을 한다. 신영복은 사직하기 전에 신문사 기자들 앞에서 언론과 금력의 야합을 비판하는 한편 그러한 불의가 용인되는 사회를 비판하는 연설을 한다. 그는 이근영과 인숙의 결혼식장에서 그 결혼의 내막을 밝히면서 사회 비판적인 연설을 한다. 신영복과 효범이 결혼식장에서 차례로 연설을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타락한 세상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정의는 무기력하다. 「진주는 주었

으나」에서는 재현과 논설이라는 기존 구도에 전술한 추리적 기법이 추가된다. 추리가 지닌 역동적 속성에 의해 논설이 공론에 머물지 않는 한편 당대의 현실이 더 생생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한 가능성이 「진주는 주었으나」에서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재현과 논설에 추리적 기법이 추가됨으로써 생긴 가능성은 염상섭의 이후 소설들에서 계속 추구된다.

제도일기에 창작된 「유서」는 전체가 추리적 구성으로 진행된다. 종전까지 이 작품은 염상섭의 동경 체류와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김윤식은 「유서」는 염상섭의 동경 하숙방이 ‘창작의 산실’이었음을 보여주며 창작방법론의 면에서는 “유서라는 편지형식이 이 작품을 작품이게끔 만든 결정적인 구성의 원리”¹⁶⁾라고 했다. 그런데 작품 외적인 사실과의 관련을 접어두고 작품 자체만을 고찰할 경우 「유서」는 추리소설다운 면모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작중 화자인 ‘나’가 지인의 송별 술자리를 마치고 하숙방으로 돌아와서 보니 그 방에 함께 기거하는 D는 보이지 않는다. ‘나’가 쓰던 원고 옆에서 D가 남긴 글이 발견된다. D가 실종되었고 그 실종과 관련한 단서가 ‘나’의 앞에 놓인 셈이다. 그 실종과 단서로 추리적 구성을 위한 조건이 마련된다. 게다가 단서 격의 글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가 보인다. D는 “S군! 나는 지금 내 길을 결정하였소. …(중략)… 미안하나 뒷일을 부탁하오.”라며 작별 인사를 한다. 추신에서는 “이 세상을 하직하고도 싶소”라는 말도 들어 있다. 어느덧 ‘나’는 탐정처럼 D가 남긴 글을 두고서 그의 자살 가능성에 대해 추리하기 시작한다. “범죄를 둘러싼 인물은 ‘범인, 희생자, 탐정’ 이렇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⁷⁾ 「유서」의 경우 범죄가 자살이므로 D는 범인이면서 희생자이다. ‘나’는 D의 근황과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를 떠올리면서 그의 심리 상태를 추리

16) 김윤식, 앞의 책, 354면.

17) 박유희, 「한국 추리서사와 탐정의 존재론」,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3, 추리물』, 대중서사장르연구회, 이론과실천, 2011, 24면.

한 끝에 그가 자살하려 하거나 이미 자살했다는 심증을 갖는다. D의 자살 가능성에 대한 추리가 마무리되자 그의 행방을 탐문하는 일이 남는다. '나는 지인들을 찾아가 D의 행방을 묻는 한편 그가 갔을 만한 곳을 찾아 다닌다. '나는 추리와 탐문이 중첩된 수사의 과정을 밟는다.

토도로프에 따르면 추리소설은 범죄서사와 수사서사로 이루어진다.¹⁸⁾ 수사서사는 범죄서사가 종료된 후에 개시되는데 『유서』도 그 순서를 그대로 따른다. D가 유서처럼 보이는 글을 남기고 사라진 후에 그의 행방을 추적하는 '나의 수사가 진행된다. 추리소설에서 범죄서사는 수사서사로 드러나는데 『유서』에서도 '나의 수사를 통해 D의 행적이 차츰 밝혀진다. 탐정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고전적인 원칙도 『유서』에서 그대로 지켜진다. D가 자살한들 '나'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진주』과 『유서』는 추리적 기법에 대한 염상섭의 이해 수준을 잘 보여준다. 추리적 기법은 채도일기를 전후 한 시기에 그의 창작 방법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재현과 논설에 추리적 기법이 추가됨으로써 그의 소설은 더 완숙한 경지로 나가게 된다.

3. 끝나지 않는 싸움, 「사랑과 죄」

『사랑과 죄』의 서사는 추리적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사의 주요 계기마다 추리가 작용한다. 도입부에서부터 그러한 작용이 파악된다.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부 지순영이 병원을 나와 심초매부의 집으로 향한다. 화가 이해춘이 그 집의 화실을 빌려서 동경에서 열리는

18) Tzvetan Todorov, *The Poetics of Prose*, trans. Richard Howard, Cornell UP, 1977, pp.44-45. '수사서사는 범죄서사가 종료된 후 이루어진다'거나 '탐정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같은 추리소설의 고전적 관습과 관련된 본 논문의 서술들은 모두 츠베탕 토도로프가 이 책에서 정리한 내용에 의거한다.

미진의 출품작을 준비하는데 순영이 모델 노릇을 하기로 했다. 순영은 길에서 오빠인 지덕진과 조우한다. 덕진은 순영과 헤어져 걷다가 발길을 돌려 동생을 미행하기 시작한다. 순영의 행보에 대한 의심이 든 덕진은 그 의심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 미행은 순영이 큰길에서 골목길로 접어든 이후에 중단된다. 골목으로 들어간 후 순영의 행방이 묘연하다. 덕진이 골목 안을 오가며 순영이 들어갔을 만한 집을 찾던 중 어느 한 집의 문이 열리고 하녀로 보이는 여자가 나온다. 집에 누가 오지 않았느냐는 덕진의 물음을 하녀는 부인한다. 골목 밖으로 나갔던 하녀가 잠시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덕진은 순영이 그 집으로 들어갔다고 확신한다. 하녀가 보자기에 싸 들고 간 과자와 과일이 손님 접대용이고 그 손님이 순영이라고 덕진은 추리한 것이다.

순영의 행보를 의심하면서부터 덕진은 탐정처럼 행동한다. 그는 순영을 미행하고 하녀를 심문하고 우연한 단서를 통해 순영의 종적을 추리해낸다. 덕진이 진짜 탐정이라면 그에게 남은 일은 가택 수색이다. 물론 덕진에게는 남의 집을 수색할 권한이 없기에 우회적인 방법을 써서 심초매부 집의 내부 사정을 확인한다. 그는 순영의 생모인 아편쟁이 해죽집을 급히 데려와 심초매부의 집 안으로 들여보낸다. 해죽집은 순영이 정부와 함께 있으므로 그 정부를 협박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덕진의 말에 솔깃하여 집으로 들어가 소란을 부린다. 덕진은 해죽집을 통해 자신의 추리를 입증한다. 탐정은 용의자를 미행하고 사건 현장에 잠복하고 목격자 심문과 현장 수색을 통해 사건을 해결한다. 덕진도 그와 유사한 과정을 밟아서 순영의 소재를 파악한다. 물론 윤리적이나 법적인 차원에서 순영은 범인으로 볼릴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 덕진은 자신이 근무하는 무역회사의 사장 류택수에게 순영을 시집보내는 대가로 거금을 챙기려 한다. 금전을 취할 목적으로 여동생을 호색한의 첩으로 보내는 행위는 인신매매이다. 따라서 윤리적이나 법적으로 범인 취급을 받아야 할 사람은 덕진이다. 다만 서사의 전개상 덕진을 탐정으로 가정할 경

우 순영이 범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 여기서 범인은 윤리적이거나 법적인 의미가 아닌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된 용어이다. 그들의 관계가 상대적이라는 것은 순영의 입장에서 보면 덕진이 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해죽집을 심초매부의 집에 들여보내 소란을 부리도록 한 장본인이 덕진이라는 것을 순영은 나중에 추리해낸다. 그 관계에서 순영이 탐정이 되고 덕진이 범인이 된다.

『사랑과 죄』의 작중인물들은 순영과 덕진의 경우처럼 추리소설의 탐정과 범인으로서 상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정마리아는 해춘을 찾아온 순영의 정체를 캐기 위한 질문을 계속하는데 그 집요함은 심문의 양상을 띤다. 정마리아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순영이 해춘이 준비하는 미전 출판작의 모델이고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부이며 여성 독립운동가 한희의 의자매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해죽집의 출현으로 순영의 가족 관계에 관한 정보도 덩어리로 획득된다. 첫 대면에서 정마리아와 순영은 탐정과 범인으로서 심문하고 심문받는 관계를 형성한 셈이다. 한편 해죽집의 주장에 궁극증이 생긴 해춘은 그것의 진위를 밝히기 위한 탐문에 나선다.¹⁹⁾ 그는 입원해 있는 김호연을 찾아가 순영의 출생에 관해 묻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한다. 그 후로도 그는 탐문을 계속함으로써 그 의문에 관한 한 탐정의 위치에 서게 된다.

작중인물들이 탐정과 범인으로 상대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은 대결의 구도이다. 순영 대 덕진이나 순영 대 정마리아의 경우처럼 그 대결은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지만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는 인물끼리 연대함으로써 집단 간의 대결로 그 규모를 키우기도 한다. 작중에서 서로 대결하는 두 집단이 선명하게 갈리는데 그 하나는 ‘지순영-이해춘-김호연-류진-운선’으로, 다른 하나는 ‘류택수-정마리아-지덕진-해죽집-로태로’로 이루어진다.²⁰⁾ 서술의 편의를 위해 이후 전자를 김호연파로, 후자를

19) 이해춘이 지순영의 출생의 비밀을 탐문하는 과정이 김학균에 의해 상세히 논의되었다. 김학균, 앞의 글, 48-50면.

류택수파로 약칭한다. 것처럼 개인과 집단에 걸쳐 벌어지는 여러 대결의 중심에는 순영의 혼사가 자리 잡고 있다. 한 편에 순영을 류택수에게 혼인시키려는 류택수파가 있고 다른 한 편에 그 혼사를 저지하려는 김호연파가 있다. 류택수파는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 따라 내부적으로 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혼인의 당사자인 류택수가 육욕을 충족할 목적으로 순영과 결혼하려 한다면 정마리아는 해춘으로부터 순영을 떼어놓을 목적에서 류택수의 편에 선다. 덕진은 거금을 취할 목적으로 순영을 류택수에게 보내려 한다. 해춧집은 아편 살 돈이 필요하여 덕진과 작당을 한다. 그러한 이해관계의 차이는 구성원들 간의 대결을 부르기도 한다. 정마리아가 해춧집을 살해한 사건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정마리아는 순영에게 살인자의 누명을 씌워 그녀를 제거할 목적에서 해춧집을 살해한다.

『사랑과 죄』에서 개인이건 집단이건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저마다 음모를 꾸미고 기만을 저지르는가 하면 추리를 통해 상대의 음모와 기만을 파악하여 분쇄하려 한다. 김호연파와 류택수파가 처음으로 정면 대결한 약혼식 사건에서도 양측은 서로에 대해 음모와 기만을 꾀한다. 순영을 성균관 뒤의 일본 요릿집으로 유인하여 류택수와 약혼식을 올리도록 하는 음모가 류택수와 덕진과 로태로 사이에 마련된다. 그 음모대로 덕진은 자동차를 대기시키고 순영을 기다린다. 물론 덕진은 순영에게 약혼식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순영이 일단 약혼식 자리에 오게 되면 그 후로 발뺌을 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류택수파의 계산이었다. 약혼식 자리에 갔다는 사실 자체를 순영이 부인할 수 없기에 올라미에 사로잡힌 상태가 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약속한 시각이 되어도 순영은 나타나지 않는다. 류택수파의 음모를 간파한 김호연파가 약혼식이 예정된 요릿집 방의

20) 김윤식은 『사랑과 죄』의 인물들이 긍정적인 인물군과 부정적인 인물군으로 양분된다고 하였다. 지순영을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중간에 위치하는 인물로 본 점을 제외하면 김윤식의 그 이분법은 본 논문의 그것과 일치한다. 김학균은 『사랑과 죄』의 인물들이 '선악의 이분법'으로 제시된다고 전제했다. 김윤식, 앞의 책, 370면; 김학균, 앞의 글, 48면.

바로 옆방에 미리 진을 치는 역습을 펼친다. 류택수는 옆방에서 들리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당황할 뿐 아니라 수치마저 느낀다. 옆방에는 순영이 이미 당도해 있고 아들 류진도 함께 있는 게 분명하다. 덕진이 뒤늦게 요릿집에 닿은 후에 류택수파의 방으로 반지가 전달된다. 류택수가 순영에게 청혼의 의미로 보냈던 백금 반지였다. 류택수파의 음모는 수포로 돌아가고 류택수파는 조롱과 수모를 당한다. 그 첫 대결 이후에도 김호연파와 류택수파는 두 차례 더 정면 대결을 한다. 두 번째 대결은 평양을 무대로 순영을 두고 벌어지는 쟁탈전으로서 첫 번째 대결의 연장전과 같은 성격 을 지닌다. 호연의 부탁으로 해춘이 최진국에게 인삼을 산 일이 빌미가 되어 해춘과 운선을 제외한 김호연파의 인물들이 평양의 감옥에 수감된다. 그들은 최진국이 평양에서 일으킨 모종의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거된 것이다. 해춘은 자작 신분이어서 검거를 면할 수 있었다. 류택수는 금력을 이용하여 순영을 풀려나도록 조치하고 석방된 순영을 덕진이 빼들려 류택수와의 약혼을 추진할 음모를 꾸민다. 순영의 옥바라지를 위해 평양에 와 있는 해춘은 정마리아가 맡기로 한다. 그런데 운선이 그 음모를 파악하여 해춘에게 전하고 해춘과 운선은 순영을 구해낼 음모를 꾸민다. 운선이 귀땀해준 대로 순영은 목욕탕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서 덕진이 지키는 여관방을 빠져나와 해춘에게 간다. 해춘과 순영은 미리 준비해둔 자동차 편으로 평양을 빠져나간다. 두 번째 대결에서도 류택수파는 김호연파에게 완패를 당한 채 빈손으로 귀경한다. 김호연파와 류택수파의 세 번째 대결은 일종의 추격전의 양상을 띠고 전개된다. 해춘은 귀경한 후 심초매부의 집에서 남산 자락의 한 여관으로 작업실을 옮기고 순영도 그 여관에 거처하게 한다. 류택수파의 보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해춘이 그림 작업에 전념하면서 순영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류택수는 덕진을 시켜 순영이 묵는 여관을 알아내게 한다. 덕진은 완력을 지원할 사내 한 명을 동반하고 해죽집까지 따르게 한 후 그 여관을 기습하지만 격퇴당한다. 류진이 그 습격을 미리 알고서 대비하고 있던 것이다. 정마

리아도 집요한 탐문 끝에 순영이 도피한 여관을 찾아내고 방으로 들어가 해춘이 그린 순영의 초상화를 훼손한다. 그러나 정마리아가 훼손한 초상화는 미전 출품작이 아니었다. 출품작은 이미 동경으로 보냈고 그전에 그렸던 초상화를 기념으로 벽에 걸어놓았으므로 그녀의 복수는 실패로 끝난 셈이다. 게다가 그녀는 손톱 밑에 남은 잉크 자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해죽집을 살해한 진범으로 체포된다. 경찰이 그녀의 범죄를 확인하는 과정도 추리적으로 전개된다.

세 차례에 걸쳐 정면 대결한 김호연과 류택수과는 윤리와 가치의 면에서 선명하게 구별된다. 윤리의 면에서 전자가 선하다면 후자는 악하다. 가치의 면에서 전자는 본질적인데 비해 후자는 세속적이다. 따라서 두 집단 간의 대결은 선과 악, 또는 본질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 사이의 대결로 파악된다. 작중에서 김호연과의 윤리와 가치는 논설로써 표명된다. 호연과 해춘과 류진이 그들끼리 혹은 다른 인물과 토론하는 장면이 본문에 종종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그들의 주장은 논설의 형태를 띤다. 그 논설에서 주로 다룬 주제들은 인생과 이념과 예술이다. 인생에 관한 논설은 육체와 영혼이라는 인간의 기본 속성을 전제로 삶의 태도와 방법에 대한 사유를 전개한다. 육체와 영혼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하는가에 따라 ‘식색주의’와 ‘영혼주의’로 구분되고 진화론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념에 관한 논설은 유물론과 유심론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와 허무주의와 무정부주의 사이의 갑론을박으로 발전한다. 사회주의를 포함하는 당대의 이념적 지형이 나타나는 토론은 남산골의 한 카페에서 벌어진다. 정마리아는 자신의 독창회를 마친 뒤 요릿집으로 해춘과 호연을 초대하고 기생까지 불러서 뒤풀이 자리를 연다. 그 자리가 파한 후 한 잔 더 하기 위해 들른 카페에서 일행은 류진을 만난다. 류진에게는 동행이 있는데 적도라 불리는 일본인 무정부주의자이다. 호연과 해춘과 류진과 적도는 저마다의 입장을 논설로써 펼치고 그 논설들이 부딪혀 진지한 논쟁의 상황이 연출된다. 예술에 관한 논설은 해춘의 그림 작업과 관련하여 전개된다. 예

술에 전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해춘의 지론을 호연과 류진은 이상주의라고 평가한다. 김호연파의 인물들이 여러 논설의 사례들을 통해 보여주는 인생과 이념과 예술에 대한 태도는 윤리적으로 선하고 가치의 면에서는 본질적이다.

김호연파의 윤리와 가치가 논설로써 명시적으로 제시된다면 류택수파의 윤리와 가치는 재현을 통해 암시된다. 류택수파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말로써 주장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논설을 통해 타인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는 것보다 욕망하는 바를 달성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실천한다. 류택수는 순영을 얻기 위한 작전을 거듭 실행에 옮긴다. 정마리아는 류택수에게 거금을 뜯어내는 한편 해춘과 결혼하기 위해 상황과 필요에 따라 변신과 위장술을 쓰고 급기야 살인마저 저지르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금전적 수익이라는 목적에서 덕진은 류택수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해춘집은 덕진에게 동조한다. 것처럼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류택수파의 윤리와 가치는 악하고 세속적이다.

선은 악에 대해 우월하고 본질은 세속에 대해 우월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된다. 『사랑과 죄』의 서사도 그러한 인식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미 살핀 바와 같이 김호연파는 세 차례에 걸친 대결에서 류택수파에 대해 승리를 거둔다. 선이 악을, 본질이 세속을 이긴 것이다. 류택수파는 번번이 패퇴하지만 소멸하지 않는다. 김호연파의 승리는 일시적인데 그칠 뿐 지속하지 않는다. 세 번째 대결이 끝난 후 『사랑과 죄』는 행복한 결말을 향한다. 순영과 운선은 해춘의 주선으로 일본 유학을 준비한다. 해춘이 그들과 함께 동경에 갈 예정이다. 해춘과 순영의 사랑도 행복한 결말을 향하는 듯하다. 그러한 양상이 이형식 일행의 유학과 그 후일 담으로 마무리되는 『무정』의 결말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사랑과 죄』는 『무정』을 따르지 않고 급격한 반전으로 막을 내린다. 최진국의 공판장에서 우연히 발견된 증거로 김호연파는 순식간에 와해된다. 호연이 다시

검거되고 해춘과 순영과 류진은 식민지 조선을 탈출한다.

식민지라는 현실적 조건에서 「사랑과 죄」를 「무정」처럼 끝내는 것을 염상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김호연파가 류택수파를 끝내 이길 수 없는 것은 류택수파의 배후에 일본의 식민 권력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류진과 순영을 조기에 석방시킨 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류택수의 급력은 식민 권력에 의지한다. 정마리아는 일본의 사무관과 직접 연결된 정보원이다. 식민 권력은 류택수파의 패배를 확정하지 않고 두 집단의 대결을 원상태로 되돌려놓곤 한다. 김호연파로서는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는 셈이 된다. 식민 권력이 전제되는 한 그 싸움은 끝날 수 없다. 김호연파가 그 싸움을 끝내려면 류택수파가 아닌 식민 권력을 상대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항일 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찍이 항일 투쟁의 최전선에 나섰던 한희는 빈사의 상태에서 가까스로 국외로 탈출했다. 항일 투쟁은 그만큼 지난하고 그 투쟁에 나서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식민 권력은 강고할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어서 선부른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다. 호연이 은밀하고 신중하게 주도한 투쟁이 실패로 끝난 데서 식민 권력의 위력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4. 악의 세계, 「이심」

「사랑과 죄」는 김호연파의 소멸로 끝난다. 호연은 투옥되고 순영과 해춘과 류진은 조선을 떠난다. 「사랑과 죄」의 김호연파가 사라진 이후의 세계가 「이심」이다. 「이심」에는 선하면서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창호가 김호연파에 속하기에는 무능하고 무기력하다. 이창호에 비하면 김호연파의 인물들은 저마다 가치관이 분명하고 활기차다. 창호에게서는 호연의 분별력이나 해춘의 인간미나 류진의 냉철함이 보이지 않는다. 그 또한 박춘경의 불행과 타락에 이바지하는 인물이다.

선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부류가 소거되고 악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부류만 남는다고 세상에서 대결이 줄지 않을 것이다. 같은 편끼리 지낸다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호연과는 양보와 이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그 집단이 공유한 윤리와 가치에 그러한 가능성이 내장되어 있다. 그러나 류택수파의 경우 갈등이 심화할 공산이 크다. 악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경우는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뿐이다. 그들은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서로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랑과 죄』에서 류택수파의 구성원들이 보여준 분화가 그러하다. 그 분화가 『이심』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이심』에 등장하는 좌야와 강찬규와 수원집은 『사랑과 죄』의 류택수파에 포함되기에 손색이 없다. 작중에서 그들은 서로 의심하고 속이기를 되풀이한다. 의심은 입증을 요구하고 속이려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탐정과 범인으로서 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서사는 추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심』의 전체 서사에서 추리는 사건을 발생시키고 전환하는 동기와 계기로써 기능한다. 서사의 출발부터 작중인물의 추리에 의해 시동이 걸린다. 박춘경과 이창호가 연인 사이라는 것은 잘못된 추리에서 비롯된 날조이다. 청춘의 남녀에게 이성애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생길 수 있다. 그 정도의 관심을 보인 남녀를 연인 사이로 단정한다면 망상으로 불러야 한다. 그런데 창호에게 호감을 지니고 있던 최선생이 그러한 망상을 품는다. 테니스 대회 우승 축하연 자리에서 춘경과 창호가 몇 번 눈을 마주친 일이 최선생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게 한다. 의심에서 비롯된 추리가 의심을 증폭시키면서 최선생의 추리는 사실로부터 멀어지지만, 과장된 증언과 왜곡된 증거에 힘입어 사실로 굳어진다. 창호와 춘경 사이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란 가는 방향이 같아서 둘이 잠시 밤길에 동행했다는 사실 뿐이다. 그 동행에는 다른 여학생이 한 명 더 있었다. 창호가 상상에 잠겨 춘경의 이름을 공책에 적었다가 선생에게 들킨

일도 춘경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춘경과 창호는 그들의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당한다. 최선생이 아집과 억측으로 주도한 추리가 그들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든 것이다. “만일에 무죄한 아이들이 이 조그만 일로 말미암아 일생의 운명을 그르친다면 당신네가 인도상으로 얼마마한 죄를 짓는가 반성해주기를 바랍니다.”²¹⁾고 박춘서가 우려한 대로 춘경의 불행은 최선생의 잘못된 추리를 빌미로 시작된다. 그 추리가 없다면 유복한 가정의 막내딸로 재능과 미모를 겸비한 춘경이 불행의 나락으로 가라앉는 사태가 개시되지 않을 것이고 『이심』의 서사도 존재할 수 없다.

『이심』의 본문 도입부는 창호가 패밀리호텔을 나온 직후부터 시작된다. 춘경과 창호가 교칙이 금하는 연애를 했다는 죄명으로 퇴학에 이르는 사건은 본문의 서술 순서상 도입부 이후 소급제시 된다. 춘경은 집에서도 쫓겨나 창호와 부부가 된다. 그런데 창호는 모종의 사건으로 투옥되어 2년간 옥살이를 한다. 『이심』의 전체 서사가 최선생의 추리에 의해 시동이 걸린다면 본문의 도입부 이후 전개되는 서사도 작중인물들의 추리에 힘입어 새로운 단계와 국면에 접어든다. 패밀리호텔의 지배인 좌야가 춘경에게 전하라며 건넨 편지를 통해 창호는 자신이 옥살이하는 동안 아내 춘경이 미혼녀 행세를 하며 좌야와 간통했다는 추리를 한다. 창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파출소에 붙들리고 다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창호에게 잉크병으로 얻어맞은 좌야는 관련된 정황들을 추리하여 그간 자신이 춘경과 강찬규에게 속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강찬규는 유부녀인 춘경을 미혼녀로 속이고 좌야에게 소개했다. 좌야는 자신을 우롱한 춘경과 강규에게 복수하고 더불어 자신의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민다. 순진한 미국인 청년 커닝햄에게 춘경을 소개하고 거금을 챙기려 한다.

『이심』에서 가장 탐정처럼 활동하는 인물은 찬규이다. 전술한 바대로

21) 『전집 3』, 58면.

여기서도 탐정은 상대적인 의미로 쓰인다. 찬규가 하는 탐문과 추리는 탐정의 기법이지만 그 기법이 사악한 목적에 복무하기에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는 친구인 창호가 투옥된 동안 춘경을 돕는다는 구실로 그녀를 성적으로 농락한다. 창호가 다시 수감된 뒤에도 그는 성적인 쾌락을 목적으로 춘경의 주변을 맴도는 한편 그녀와 좌야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엿탐한다. 좌야가 어떤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단서를 찬규가 잡는 장면은 추리소설을 방불케 한다. 그는 좌야가 부재중인 사무실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 놓인 편지 봉투를 발견한다. 알맹이가 없는 그 봉투의 겉면에는 '미쓰, 춘자, 박'이라고 써어 있다. 춘경은 호텔에서 박춘자로 통했다. 호텔에 투숙한 어떤 서양인이 춘경에게 연애편지를 보냈다고 여길 수 있으나 그 편지가 좌야의 사무실에 있는 것이 심상치 않다. 그는 더 수색을 펼친 끝에 압지에 남은 잉크 자국을 발견한다. 'Chooncha'가 흐릿하게 뒤집혀 찍힌 것은 서명한 후 잉크를 말리기 위해 압지로 눌러서 남은 자국이였다. 앞서 발견한 빈 봉투의 겉면에 쓰인 한글 이름 표기와 압지에 찍힌 영어명을 두고서 찬규는 어떤 서양인이 춘경에게 보낸 편지를 좌야가 중간에서 가로채 읽고서 춘경 대신 답장을 썼다는 추리를 해낸다. 찬규는 좌야의 음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는데 그러는 자신의 활동을 두고 좌야에게 보낸 편지에서 "근자에 나는 탐정적 흥미에 취미를 붙여, 사설정 탐국을 세웠습니다."²²⁾라고 으스댄다. 그 말이 허언이 아닐 정도로 찬규는 용의주도하다. 그는 사라진 춘경의 행적을 추적하여 그녀가 여관에 투숙한 후 음독자살을 기도했고 여관주인인 수원집에게 구명되었으나 그 대신 낙태한 사정을 눈으로 본 것처럼 재구성해낸다.

찬규가 협박용으로 보낸 편지를 보고서 좌야는 물론이려니와 수원택도 그를 두려워하게 된다. 수원택은 박춘경을 돌보다가 어느 부유한 사내의 후실로 보내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챙길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에 앞서

22) 『전집 3』, 208면.

수원택이 춘경의 자살 기도를 파악하는 과정도 추리적으로 진행된다. 좌야는 친구가 감시하고 있는 한 자신의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서 친구에다 수원택까지 아울러서 일종의 사기단을 꾸민다. 춘경도 그 사기단에 가담한다. 자포자기 상태인 그녀로서는 돈이 생기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커닝햄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 박춘경의 가짜 가족이 만들어진다. 수원택이 모친을 맡고 친구가 오빠를 맡고, 수원택이 데려온 어느 집 식객 노인이 부친을 맡기로 한다. 그들은 커닝햄에게 일만 원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지만, 그 돈을 분배하기로 한 애초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좌야는 그 돈 전부를 수중에 지닌 채 술가하여 종적을 감춘다. 탐정과 범인으로 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던 인물들 간의 대결에서 좌야가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 그는 음모와 기만의 면에서 사기단의 다른 구성원들을 압도한 것이다.

기존의 한 연구는 『이심』이 “박춘경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²³⁾고 전제한 후 “염상섭이 이 작품에서 겨냥한 것은 박춘경의 타락의 원인을 여자의 창녀적 기질에 관련을 지은 점에 있다”²⁴⁾고 주장했다. 그러나 춘경이 창녀적 기질을 지녀서 타락한다는 주장은 『이심』 본문의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다. 그녀는 최선생의 질투가 원인이 되어 퇴학을 당한다. 『이심』 전편에 걸쳐 그녀가 겪는 불행의 발단이 바로 그 퇴학이다. 그런데 그 퇴학이라는 사태가 그녀의 창녀적 기질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할 만한 본문 중의 근거는 희박하다. 그녀는 최선생을 비롯한 타인들의 무책임한 덮어씌우기에 일방적으로 희생된다. 창호가 옥살이하는 동안 그녀는 좌야의 정부 노릇을 하는가 하면 친구의 성적인 요구도 들어준다. 좌야는 경제적인 지원을 대가로 그녀의 성을 취한다. 친구는 창호가 부재한 동안 그녀를 돕는다는 핑계로 그녀를 농락한다. 정절을 목숨처럼 여겨야 한다는 윤리적 명령이 전제된다면 그녀는 창녀로 지

23) 김윤식, 앞의 책, 457면.

24) 같은 곳.

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러한 명령은 근대 이전의 사회와 서사체에서 유효하게 작동한다. 보편적 질서가 현실에서 구현된다고 믿는 시대와 그 시대의 서사체에서 여성은 정절을 목숨처럼 여겨야 하고 것처럼 결연하게 정절을 지키면 마침내 위기를 모면하거나 고난을 넘어서 열녀로서 칭송을 받는다. 『춘향전』을 비롯한 근대 이전의 서사체에서 그러한 열녀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정절을 지키는 『춘향전』 같은 행복한 결말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근대이다. 『무정』의 박영채가 그러한 정절의 현주소를 이미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박춘경은 정절의 현실적 가치와 의의가 회의 되는 시대를 사는 인물이므로 그녀의 훼손을 창녀적 기질로 매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재고되어야 한다. 그녀는 열녀의 반열에 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창녀로 취급될 정도로 방탕하지 않다. 세속적인 가치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그녀는 다만 현실적 고통에 대한 내성이 부족할 뿐이다. 열녀만큼 강인하지 못하여 유혹에 끌리고 강압에 진 것이다. 찬규에게 능욕을 당한 후 이를 갈면서 자책하는 모습에서 창녀적 기질에 반하는 그녀의 성격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녀의 자살 시도와 자살에서도 그녀가 지닌 인간 본연의 자존감과 수치심이 읽힌다. 그녀의 타락에는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의지가 박약하여 그녀는 타락의 길을 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녀를 타락시킨 세상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²⁵⁾ 추리적 구성을 통해 구현된 바와 같이 『이심』의 세상은 이기적인 욕망들의 대결장이다. 음모와 기만이 싸움의 기술이 되고 의리보다 사익이 우선하며 배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세상에서 춘경 같은 인물은 패배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그녀의 패배를 그녀의 기질 탓으로 돌린다면 가혹한 평결이 된다. 오히려 그녀는 타락한 세상을 산다는 이유로 불행을 겪는 피해자이기도 하다. 작중에서 그 불행은 인신매매에 집약되어 진행된다.

25) 김학균은 박춘경을 가부장제 사회의 희생자로 보았다. 그러나 박춘경이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켰다는 그의 전제는 본문을 오독한 것이다. 김학균, 앞의 글, 35면.

인신매매는 「이심」에서 전개되는 추리적 구성의 중심 내용을 이룬다. 박춘경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이다. 작중에서 인신매매는 네 차례 다뤄지는데 뒤로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 첫 번째는 춘경이 생계를 위해 좌야와 간통한 경우이다. 그 경우는 자신의 성을 금전과 교환한다는 점에서 매춘에 해당하는데 매춘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일종의 인신매매이다. 매춘을 해야 할 만큼 춘경은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두 번째는 좌야가 춘경을 커닝햄과 결혼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경우이고 세 번째는 수원댁이 춘경을 부자의 첩으로 보낼 계획을 세운 경우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타인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인신매매의 형태를 온전히 갖추고 있다. 네 번째는 창호가 춘경을 유곽에 팔아넘기는 「이심」의 결말 부분이다. 출옥한 창호는 자신이 옥살이하는 동안 춘경이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서 분노하고 절망한다.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사전 조사까지 마친 뒤 춘경을 유곽으로 유인한다. 그 과정이 추리소설에서 범인이 범행을 추진하는 방식과 흡사하다. 계획한 대로 춘경을 유곽에 팔아넘긴 후 창호는 유곽에서 받은 돈을 동봉한 편지를 커닝햄에게 띄운다. 창호가 그 편지에서 보이는 태도는 추리소설의 지능범이 자신의 완전범죄를 자랑하듯 의기양양하다. “군은 사람의 안해를 일만 오천 원에 샀다 하나 시장의 그 실가는 팔백 원에 불과하기로, 팔백 원을 송정하는 바이니,”²⁶⁾라는 창호의 말은 득의에 차 있다.

창호는 춘경을 유곽에 팔아넘기는 일을 ‘벌을 주는 것’이라고 정당화한다. 여기서 ‘벌’이란 창호의 투옥 기간에 박춘경이 한 행위들에 대한 것이다. 창호는 남편으로서 아내인 춘경을 징벌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전제한다. 그 전제로부터 그가 벌이는 징벌은 아내를 매물 취급하는 것인데 인신매매로는 가장 지독한 경우이다. 창호는 그 인신매매를 정의롭다고 여기며 결행하지만, 그의 의도가 무엇이든 인신매매는 그 자체로 악이 된

26) 『전집 3』, 297면.

다. 「이십」의 도입부에서 창호는 좌야가 준 돈의 내막을 안 후 그 돈을 걸인들에게 던져버릴 만큼 도덕적 결벽성을 지닌 인물로 등장한다. 본 논문이 「사랑과 죄」에 대해 설정한 기준에 따르면 그는 김호연파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런 그가 정의의 실현 방법으로 인신매매를 선택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류택수파에 합류한다. 이창호 같은 인물마저 악에 물들게 만드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이십」이 펼쳐 보인 현실이다.

5. 결론

재도일을 전후한 시기의 염상섭 소설에서 추리적 기법이 관찰된다. 재현과 논설을 통해 사실주의를 실천하던 그의 소설 창작에 새로운 방법이 추가된 것이다. 작중에서 인물이나 서술자에 의해 전개되는 논설은 공론에 그치곤 했다. 「E선생」과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의 등장인물들이 펼치는 주장은 악한 인물을 교정하거나 기존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말의 수준에 머물렀다. 그에 비해 행동과 사건을 대상으로 한 재현은 구체적인 실감을 획득했다. 그로써 실감이 공론을 압도하고 세속적 가치가 본질적 가치를 압도하고 재현이 논설을 압도하게 되었다. 그러한 불균형은 염상섭이 의도한 주제의 구현을 어렵게 만드는 곤경을 초래했다. 본질적인 가치가 희화되기까지 하는 사태가 그에게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염상섭 소설에서 추리적 기법은 재현과 논설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다. 추리는 논리적 속성과 경험적인 속성을 지닌다. 그 두 속성이 논설과 재현 사이에 추리가 자리할 수 있게 한다. 논리적 속성이 논설에 닿고 경험적 속성이 재현에 닿음으로써 추리가 논설과 재현을 매개하게 된다. 추리적 구성이 도입되면서 논설로써 공론을 펼치던 인물이 행동에 나설 여지가 생긴다. 추리는 수사의 과정을 요청하는데 탐정 격의

인물이 그 과정을 수행한다. 그로써 말에 그치던 본질적 가치들이 실천되고 논설과 재현 사이의 불균형이 조정된다. 『진주는 주었으나』에서 그러한 조짐이 드러나고 『사랑과 죄』에서는 양자 사이의 관계가 대등한 수준에 이른다. 추리적 구성이 인물들을 탐정과 범인이라는 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면서 인물들 간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사랑과 죄』에서는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양상을 띤다. 세 차례에 걸친 대결에서 선한 집단은 악한 집단을 번번이 이기지만 그 승리는 잠정적인 데 그치곤 한다. 악한 집단이 식민 권력을 숙주로 삼는 한 선한 집단은 승리할 수 없다. 『사랑과 죄』는 선한 집단의 급격한 와해로 끝난다. 『이심』은 선한 집단이 사라진 이후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그 세계에 남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망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랑과 죄』에서보다 격한 투쟁을 벌인다. 그들끼리 범하는 음모와 기만은 추리적 기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현된다. 인물들이 탐욕과 암투는 그 자체가 타락한 세계의 현주소이다. 거기서는 아내를 유곽에 팔아넘기는 행위마저 정의로 왜곡된다.

『사랑과 죄』에서 선한 인물들의 행복한 기대가 좌절되는 것처럼 『이심』도 행복하게 끝나지 않는다. 순진한 미국 청년 커닝햄의 순애보는 비극으로 마무리된다. 커닝햄은 춘경이 사기단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녀에 대한 구애를 멈추지 않는다. 춘경은 커닝햄의 진심에 감동하여 그의 구애를 받아들인다. 『이심』이 춘경과 커닝햄의 결합으로 막을 내린다면 한 편의 낭만적인 연애 서사가 완성된다. 그러나 그들이 그 후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식의 결말이 염상섭에게 용납되지 않은 듯하다. 고베에서 신희기를 보내던 춘경은 귀국하여 유곽에 팔리고 유곽에서 구조된 후 그 치욕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다. 춘경의 최후는 자연스러운 서사의 진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기보다 염상섭의 의도가 직접 개입한 결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염상섭이 춘경을 굳이 귀국시켜 유곽에 팔리게 하고 자살시킨 것이다. 서사가 억지스럽게 진행될지언정 당대 현실에 대한 착시를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춘경의 최후에서 드러나는 염

상섭의 의도이다. 염상섭이 사실주의 작가로서 내린 판단은 식민지 현실에서 낭만적 연애 서사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판단에 따라 염상섭은 시종 비정하고 냉혹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여주인공의 운명을 행복에서 불행으로 급전시키는 처리를 한다. 그 비정함과 냉혹함을 지탱했기에 염상섭은 이후에도 식민지 현실을 그대로 소설에 담아낼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자료

염상섭, 『진주는 주었스나』, 『동아일보』 1925.10.17.-1926.1.7.
 _____, 『염상섭 전집』 2, 3, 9, 민음사, 1987.

2. 국내 논저

강인숙, 『자연주의문학론 2-염상섭과 자연주의』, 고려원, 1991.
 강한국, 『재현과 논설』, 『현대소설연구』 7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3. 5-36면.
 김경수, 『염상섭과 현대소설의 형성』, 일조각, 2008.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김종균, 『염상섭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4.
 김학균, 『염상섭 소설의 추리소설적 성격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8.
 김현, 『김현 문학전집 2-현대 한국문학의 이론/ 사회와 윤리』, 문학과지성사, 1991.
 박유희, 『한국 추리서사와 탐정의 존재론』,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3, 추리물』, 대중서사장르연구회, 이론과실천, 2011, 13-73면.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2003.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선민서, 『염상섭의 재도일기 소설에 나타난 논쟁의 서사화 양상 연구: 『남충서』 『미해결』 『두출발』 『사랑과 죄』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12.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림기획, 2001.
 장두영, 『염상섭 소설의 서사 시학과 현실 인식의 관련 양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0.
 장수익, 『이기심과 교환 관계 그리고 이념-염상섭의 중기 소설 연구 I』, 『한국언어문학』 제 64집, 2008, 303-331면.
 조남현, 『한국현대소설 유형론 연구』, 집문당, 1999,
 _____, 『한국현대소설사 1』, 문학과지성사, 2012.
 차원현, 『한국 근대소설의 이념과 논리』, 소명출판사, 2007.
 최혜실, 『염상섭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통속성 연구』, 『국어국문학』 108호, 1992, 209-225면.
 하정일 『보편주의의 극복과 '복수'의 근대』, 문학과사상연구회 편,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깊은 샘, 1998, 47-77면.

3. 번역서, 외서

낸시 해로비츠, 『탐정모델의 실체-찰스 피어스와 에드가 알렌 포우』,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움베르토 에코 외, 김수환·한은경 역, 인간사랑, 1994, 383-412면.

Tzvetan Todorov, *The Poetics of Prose*, trans. Richard Howard, Cornell UP, 1977.

<Abstract>

The conspiracy and the deceit
—the reasoning technique of Yeom Sang-sup's novel

Kang, Hun-Kook

Yeom Sang-sup who practiced realism with reproduction and editorial, contains a new method into his creative writing methodology around the time his second visit to Japan. It is a reasoning technique. The editorials developed by characters or the narrator used to be futile in the work. In comparison, reproduction of actions and events gained a concrete sense of reality. As a result, reproduction overwhelmed the thesis. Such an imbalance has led to the plight of Yeom Sang-sup, which makes it difficult to implement the intended subject. It would not have been acceptable for him to go so far as to have his intrinsic value become comic.

In Yeom Sang-sup's novel, the reasoning technique is introduced to adjust the imbalance between reproduction and editorial. The reasoning has logical and empirical properties. The two attributes allow the reasoning to sit between reproduction and editorial. As the logical attribute reaches the editorial and the empirical attribute reaches the reproduction, reasoning interlocks the editorial and the reprodu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reasoning technique, there is room for a person who has only argued as an editorial to take action. The intrinsic values of the words are practiced and the imbalance between editorials and reproduction is adjusted. As the reasoning technique sets the characters in a relative relationship between detective and criminal, there

is a confrontation between the good characters and the evil characters in *Salang Gwha Joe*. In three showdowns, the good group beats the evil group, but the victory is still tentative. As long as evil groups host colonial power, good ones cannot win. *Salang Gwha Joe* ends in a sudden collapse of a good group. *Yi Sim* unfold the world after the disappearance of the good group. The people left in that world is in a more fierce struggle than in *Salang Gwha Jae* to realize their own desires and interests. The conspiracies and deceit that they commit among themselves are effectively embodied in the work through the reasoning technique. The greed and evil struggles of the characters are themselves the current state of the corrupt world. Even the act of selling one's wife to a brothel is claimed to be justice in that world.

Key words: editorial, reproduction, reasoning technique, *Salang Gwha Jae*, Yeom Sang-sup, *Yi Sim*

투 고 일 : 2020년 2월 14일

심 사 일 : 2020년 2월 18일-3월 5일

게재확정일 : 2020년 3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3월 26일